



보도자료 제 12/146 호
즉시 보도용
2012 년 4 월 20 일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ashington, D.C. 20431 USA

IMF의 재원을 약 미화 410억 달러 증가시키는 한국, 호주, 싱가포르, 영국의 약정에 대한 크리스틴 라가드 IMF 총재의 성명서

국제통화기금(IMF)의 크리스틴 라가드(Christine Lagarde) 총재는 오늘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저는 호주, 한국, 싱가포르, 영국이 새로 상당한 출연금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여 이 기금의 재원이 약 미화 410억 달러 증가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기금의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진행 중인 이러한 협력적 노력의 결과로 IMF 재원에 대해 미화 3,570억 달러 이상의 추가 약정이 달성되었습니다. 저희의 추가 재원 지원 요청에 대한 이처럼 광범위한 호응은 모든 회원국에 이익이 되는 글로벌 경제와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약정(한국으로부터 미화 150억 달러, 호주로부터 미화 70억 달러, 싱가포르로부터 미화 40억 달러, 영국으로부터 미화 150억 달러)은 해당 국가들이 다국간 협조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이 기금과 전체 회원국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저는 회원국들이 이처럼 이 기금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것에 매우 고무되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회원국들이 추가 약정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기금의 재원을 증가시키려는 최근의 노력에 의해 지금까지 미화 3,570억 달러가 넘는 총 약정 금액을 확보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유로 지역-1,500억 유로(약 미화 2,000억 달러), 일본-미화 600억 달러, 한국-미화 150억 달러, 영국-약 미화 150억 달러, 스웨덴-최소한 미화 100억 달러, 노르웨이-60억 SDR(약 미화 93억 달러), 폴란드-62.7억 유로(약 미화 80억 달러), 호주-미화 70억 달러, 덴마크 중앙은행-53억 유로(약 미화 70억 달러), 싱가포르-미화 40억 달러, 그리고 스위스를 포함하는 다른 몇개국들의 약정.